

다산학 35호 (2019.12) | 345~368

일본의 『주역』 연구 동향

김동진 | 경북대학교 박사후연수연구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1970년대까지의 연구사 개괄
2. 출토 『주역』 연구
3. 현대 이후의 중국 역학 연구
4. 일본 역학의 연구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970년대까지의 연구사 개괄

이 글은 일본의 『주역』 연구 동향 및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필자의 관건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일본의 『주역』 연구사를 다룬 글은, 廖名春·康學偉·梁韋弦 공저, 심경호 번역, 『주역철학사』(원제는 『周易研究史』, 湖南出版社, 1991) 제7장의 제5절 「해외의 역학 연구」¹⁾가 유일하다. 위의 글은 『주역』의 전래에서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일본의 역학사를, 주요 인물과 저작, 사건 등을 중심으로 매우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외국어로 된 것으로는 최근 대만의 학술지 『哲學與文化』(2015년 12월호)에 게재된 곤도 히로유키近藤浩之의 「日本易學研究之成果及述評－日本近五十年易學研究狀況及成果」가 있다. 위의 글은 근래 50년간의 일본의 역학 연구사를, 백서 등 『주역』의 출토문헌에 대한 연구를 위주로 정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두 자료와 필자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1970년대까지의 『주역』 연구사를 개괄하고, 1980년 이후의 학술적 성과들을 분류·정리하여 최근 일본 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513년 『주역』이 백제의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에 의해 일본에 전해진 이래로 오늘날까지 일본의 『주역』 연구는 그 역사가 길다. 일본 중국학의 통상적인 시기 구분에 따르면, 그 역사는 ① 전통 한학漢學의 시기, ② 메이지유신明治維新(1868년) 이후 지나학支那學의 시기, ③ 종전 이후 지금까지의 중국학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통 한학의 시기에는 중국 역학의 많은 저작들이 꾸준히 수입되었고, 王弼註, 程傳, 本義 등 주요문헌의 경우 에도시기 상업출판이

1)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814~817쪽.

성행하면서 대량으로 출판·유통되었다. 또한 에도시대 학자들이 남긴 많은 역학 관련 저작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시기의 저작들에 관해서는, 홍콩 중문대학 吳偉明의 『易學對德川日本の影響』(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09)의 말미에 저자별, 연대순으로 정리한 상세한 목록이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지나학 시기에는 연구자들이 중국, 유럽 등의 유학을 통해 청대의 고증학적 연구방법론과 서구의 문헌학적 연구방법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주역』에 관한 근대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나이토 코난 內藤湖南(1866~1934)의 『易疑』(筑摩書房, 『內藤湖南全集』 제7권), 쓰다 소키치 津田左右吉(1873~1961)의 『易の研究』(岩波書店, 『津田左右吉全集』 제16권), 다케우치 요시오 武內義雄(1886~1966)의 『易と中庸の研究』(角川書店, 『武內義雄全集』 제3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는 ‘易의 성립’에 관한 전통적 견해를 의심하고 문헌 자료들을 근거로 고증해나가는 그들의 연구방법론이 잘 나타나 있다.

지나학 시기의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종전 이후에는 역학사 전반 및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1950~70년대에는 역학을 전문분야로 하는 연구자들이 등장해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남겼는데,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전문연구서들을 위주로 주요 성과들을 살펴보면, 『역경』의 성립에서부터 중국역학사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도다 토요사부로 戸田豊三郎(1905~1973)의 『易經注釋史綱』(風間書房, 1968)과 혼다 와타루 本田濟(1920~2009)의 『易學－成立と展開』(平樂寺書店, 1960)가 있고, 스즈키 요시지로 鈴木由次郎(1901~1976)의 『漢易研究』(明徳出版社, 1963)와 이마이 우사부로 今井宇三郎(1911~2005)의

『宋代易學の研究』(明治圖書出版, 1958)는 각각 한대와 송대 역학 연구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아래의 목차를 보면, 이 저작들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① 今井宇三郎, 『宋代易學の研究』(明治圖書出版, 1958)

第一章「周易正義と宋代易學」

第二章「河圖洛書的象數論」

第三章「太極圖考(一)」

第四章「太極圖考(二)」

第五章「無極而太極考」

第六章「二氣五行考」

② 本田濟, 『易學－成立と展開』(平樂寺書店, 1960)

第一章「易經の成立」: 通說 재검토, 卦爻辭와 十翼의 성립과정,
左傳占筮記事 등을 고찰.

第二章「易學の展開」: 漢, 後漢, 王弼, 宋明, 清朝의 역학을 개괄.

第三章「筮法」

第四章「易と中國人のものの考え方」

③ 鈴木由次郎, 『漢易研究』(明德出版社, 1963. 增補改訂, 1974)

第一部「漢易源流考」: 第一章 周易의 傳承, 第二章 前漢의 易學(田何系, 施讎系, 梁邱賀系, 孟喜系, 京房系, 費直系, 高相系, 韓嬰系, 淮南子, 子夏易傳), 第三章 後漢의 易學(施氏易, 孟氏易, 梁邱氏易, 京氏易, 費氏易), 第四章 三國六朝의 易學(吳, 魏, 晉, 南北朝, 王弼).

第二部 「漢代象數易の研究」: 第一章 象數易(占筮, 漢易과 象數), 第二章 象數易の展開(消息, 卦氣, 世應, 爻辰, 月體納申, 八卦方位, 卦變, 升降, 旁通, 互體, 半象, 覆象), 第三章 象數易の思想(漢代思想, 陰陽五行思想, 災異思想), 第四章 讖緯學と易緯(讖緯의 정의, 성립, 기원 및 前漢, 後漢의 讖緯學), 第五章 太玄經について(太玄經의 구조, 사상, 서법, 전승과 주석서).

第三部 「焦氏易林の研究」: 第一章 焦氏易林の性質, 第二章 焦氏易林の成立, 第三章 易林繇辭の重複, 第四章 易林繇辭の原型.

第四部 「周易參同契の研究」: 第一章 周易參同契の成立, 第二章 周易參同契書本の考察, 第三章 煉丹術と象數易, 第四章 周易參同契と太極圖.

④ 戸田豊三郎, 『易經注釋史綱』(風間書房, 1968)

第一章 易經の成立: 역경의 성립과정과 맹희·경방의 역학을 고찰.

第二章 後漢より魏初に至る易學の推移: 후한대의 역학사 개괄.

第三章 王弼易注: 왕필 역학을 전반적으로 고찰.

第四章 宋代の易學: 劉牧, 歐陽修, 邵雍, 周子太極圖, 張橫渠, 程伊川, 朱熹와 『周易本義』, 吳仁傑의 古周易을 다룸.

第五章 明清の易學: 來知德의 易注와 卦變, 청대 역학사를 개괄.

이외에도 鈴木由次郎의 『太玄易の研究』(明德出版社, 1964)와 오자와 분시로小澤文四郎(1911~?)의 『漢代易學の研究』(明德出版社, 1970), 야마시타 시즈오山下靜雄(1909~1982)의 『周易十翼の成立と展開』(風間書房, 1974) 등의 전문연구서가 있다.

『주역』의 번역 또한 1950~7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요 번

역서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고다 렌타로公田連太郎(1874~1964)의 『易經講話』(明德出版社, 1958), 다카다 신지高田眞治(1893~1975)·고토 모토미後藤基巳(1915~1977)의 『易經(上下)』(岩波文庫, 1969), 아카츠키 키요시赤塚忠(1913~1983)의 『易經(抄)』(中國古典文學大系 第1卷, 平凡社, 1972),鈴木由次郎의 『全釋漢文大系 易經(上下)』(集英社, 1974),本田濟의 『中國古典選 易』(朝日出版社, 1978), 今井宇三郎의 『新釋漢文大系 易經(上中下)』(明治書院, 1987, 1993, 2008), 미우라 쿠니오三浦國雄(1941~)의 『易經』(角川書店, 1988) 등이 있다. 이 번역서들은 오늘날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개설서로는 가나야 오사무金谷治(1920~2006)의 『易の話』(講談社, 1972), 다카다 아츠시高田淳(1925~2010)의 『易のはなし』(岩波書店, 1988) 등을 들 수 있는데, 두 책은 각각 『주역의 세계』(김상래 옮김, 한울, 1999)와 『주역이란 무엇인가』(이기동 옮김, 여강, 1991)란 제목으로 국내에도 출간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주역』 연구는 1970년대에 상당한 정도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1980년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보충·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연구 성과들은 ① 출토 『주역』 연구, ② 한대 이후의 중국 역학 연구, ③ 일본 역학 연구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출토 『주역』 연구

먼저 1980년 이후 일본의 『주역』 연구에서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한 것은 마왕퇴馬王堆 백서 등 출토 『주역』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출토자료

들을 바탕으로 『주역』 경문의 본뜻을 밝히고 『주역』의 성립 및 경전화 經傳化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 연구 흐름의 기본성격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 마왕퇴 백서 등 출토문헌이 일본 학계에 소개되고 출토문헌의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이케다 토모히사池田知久(1942~), 아사노 유이치淺野裕一(1946~) 등 중국 고대사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백서 『주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상당한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서두에서 언급한 곤도 히로유키近藤浩之(1966~)의 논문이 백서 『주역』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들이 보다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는 이 분야의 연구와 관련하여 일본은 물론 중국의 연구 성과들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 출간예정인 곤도 히로유키와 이승률李承律의 ‘마왕퇴 백서 『주역』의 역주서’(馬王堆出土文獻譯註書叢書, 東方書店)에는 그간의 연구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생각된다.

- 近藤浩之, 「馬王堆漢墓帛書『周易』研究概說(上)」, 『中國哲學研究』 8, 1994.
- , 「馬王堆漢墓關係論著目錄」, 『中國出土資料研究』 1, 1997.
- , 「馬王堆漢墓關係論著目錄の訂正と追加」, 『中國出土資料研究』 2, 1998.
- , 「馬王堆漢墓帛書『周易』研究概說(中)」, 『中國哲學研究』 11, 1998.
- , 「馬王堆漢墓帛書『周易』研究概說(下)」, 『中國哲學研究』 12, 1998.
- 名和敏光, 「馬王堆漢墓帛書關係文獻目錄」, 『出土文獻と秦楚文化』 4, 2009.

近藤浩之, 西信康, 「(學界時評) 先秦 - 秦漢代」, 『中國研究集刊』 56, 2013.

2000년대에는 상박초간上博楚簡이 공개되면서 연구의 관심이 상박초간『주역』으로 옮겨갔고,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청화간清華簡『서법筮法』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띈다. 또한 출토문헌들의 종류가 다양하여 일본의 출토『주역』 연구는 단순히 역학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제자諸子, 술수術數 등 중국 고대사상의 다양한 분야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元勇準, 「『周易』の儒教經典化研究 - 出土資料『周易』を中心に」, 東京大學 學 박사학위논문, 2008.

末永高康, 「清華簡『筮法』について」, 『書法漢學研究』 15, 2014.

_____, 「清華簡『筮法』の求爻法について」, 『東洋古典學研究』 37, 2014.

大野裕司, 「清華大學藏戰國竹簡『筮法』における占術の多重構造」, 『漢字學研究』 4, 2016.

_____, 『戰國秦漢出土術數文獻の基礎的研究』, 北海道大學出版會, 2014.

3. 현대 이후의 중국 역학 연구

1980년 이후 중국 역학 전반에 대한 연구는 출토『주역』 연구와 같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개별적 관심에 따라 역학사의 주요 사상가와 문헌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아래와 같이 상당한 성과들을 축적하고 있다. 아래에
서는 이 분야의 주요성과들을 편의상 ① 한당漢唐, ② 송원宋元, ③ 명청
明清, ④ 역학 일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아래의 목록은
저자 이름, 저작 제목, 출판사 또는 학술지(권호), 출판연도의 순이다.

○ 漢唐代 易學

辛賢, 『漢易術數論研究－馬王堆から『太玄』まで』, 汲古書院, 2002. (第一
章 六十四卦の「數」と「理念」, 第二章 孟喜・京房の卦氣六十四卦
構造, 第三章 京房の八宮世應構造, 第四章 『太玄』の八十一首
七百二十九贊)

____, 「後漢易學の終章－鄭玄易學を中心に」, 『東方學』107, 2004.

____, 「「象」の淵源－「言」と「意」の狭間」, 『大阪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
要』48, 2008.

渡邊義浩 編, 『兩漢における易と三禮』, 汲古書院, 2006. (第一部 國際シ
ンポジウム「易と術數研究の現段階」: 蕭漢明, 白井順(譯), 「漢
代易學の基本的な特徴について」; 川原秀城, 「術數學」; 近藤浩
之・大野裕司, 「『日書』より見た『周易』卦爻辭の用語・語法に關
する考察」; 辛賢, 「易緯における世軌と『京氏易傳』」; 劉樂賢, 田
中靖彦(譯), 「一種の注目に値する古代天文文獻－緯書『河圖帝
覽嬉』新考」; 第三部 兩漢における易と三禮: 池田知久, 「『周易』
研究の課題と方法」 등)

白杉悅雄, 「一陰一陽と三陰三陽－象數易と「黃帝內經」の陰陽說」, 『中國
思想史研究』15, 1992.

早川泉, 「『京氏易傳』八宮構造の繼承－『周易集解』を中心に」, 『日本中國

- 學會報』70, 2018.
- _____, 「飛伏説からみる『京氏易傳』の八宮構造」, 『中國哲學研究』29, 2017.
- 中村璋八, 「易緯について(1)」, 『駒澤大學外國語部論集』21, 1985.
- _____, 「易緯について(2)」, 『駒澤大學外國語部研究紀要』14, 1985.
- 武田時昌, 「『易緯坤靈圖』象數考」, 『日本中國學會報』39, 1987.
- _____, 「『易緯乾鑿度』の易説」, 『日本中國學會創立五十周年記念論文集』, 1998.
- 齋藤實, 「辛酉革命と甲子革命－『易緯』鄭玄注の解釋を中心として」, 『日本大學藝術學部紀要』20, 1990.
- 蓮沼啓介, 「易緯鄭玄注について」, 『比較法史研究』12, 2004.
- 趙立男, 「緯書の成立および日本への流傳－『易緯』と孟京易學を中心に」, 『アジア文化研究』15, 2008年.
- 藤田衛, 「緯書の成立時期について」, 『東洋古典學研究』39, 2015.
- _____, 「『易緯乾鑿度』上下二卷に附された鄭玄注の眞偽」, 『東洋古典學研究』41, 2016.
- _____, 「『易緯』八種の眞偽問題について」, 『東洋古典學研究』43, 2017.
- _____, 「『易緯稽覽圖』に見えたる卦氣説－京氏易との關連をめぐって」, 『東洋古典學研究』44, 2017.
- _____, 「『易緯』爻辰説の考察」, 『日本中國學會報』69, 2017.
- _____, 「『易緯』『推厄所遭法』の解析－『周易命期略秘傳』を參考にして」, 東洋古典學研究 45, 2018.
- _____, 「『荀爽九家集注』の注釋と卦象」, 『日本中國學會報』70, 2018.
- _____, 「On the genealogy of the Yiwei 易緯」, 『東洋古典學研究』46, 2018.

_____, 「『易緯』の総合的研究」, 廣島大學 박사학위논문, 2019.

仲畑信, 「干寶易注の特徴」, 『中國思想史研究』 11, 1988.

_____, 「『周易集解』所引の王弼易注について」, 『中國思想史研究』 22, 1999.

_____, 「『周易集解』所引の鄭玄易注について」, 『中國思想史研究』 34, 2013.

堀池信夫, 「大衍小記－王弼の易解釋一斑」, 『哲學・思想論集』 9, 1984.

西川靖二, 「王弼の『易』解釋における「卦主」について(上)(中)(下)(續)」, 『龍谷紀要』 24(2)~26(2), 2003~2005.

_____, 「王弼易學における象傳と繫辭傳の意義－『周易略例』中の「象」「象辭」の解釋を中心として」, 『龍谷紀要』 28(1), 2006.

_____, 「王弼易學における「上下卦」の體例」について(1)(2)(3)(4)」, 『龍谷紀要』 29(2)~31(1), 2008~2009.

_____, 「大象に對する王弼易學の態度について(1)(2)(3)」, 『龍谷紀要』 32(1)~33(1), 2010~2011.

_____, 「王弼易學における「象」について」, 『龍谷紀要』 34(1), 2012.

_____, 「『周易略例』明象における『繫辭傳』と『莊子』の意義」, 『龍谷紀要』 35(1), 2013.

_____, 「『周易略例』明爻通變における『繫辭傳』の影響について(上)(下)」, 『龍谷紀要』 37(1)~37(2), 2015~2016.

_____, 「『周易略例』明卦適變通爻の分析(1)」, 『龍谷紀要』 40(2), 2019.

塘耕次, 『王弼の易注』, 明德出版社, 2018.

野間文史, 「周易正義訓讀－序・八論~頤卦・大過卦」, 『東洋古典學研究』 28~46, 2009~2018.

江波戸互, 「『周易參同契分章通眞義』覺書」, 『論叢アジアの文化と思想』

23, 2014.

_____, 『彭曉『周易參同契分章通眞義』譯注(1)』, 『論叢アジアの文化と思想』 24, 2015.

한당대 역학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역위易緯에 대한 연구 성과의 축적이 눈에 띈다. 위서緯書 연구로 저명한 나카무라 쇼하치中村璋八(1926~2015)와 술수학術數學 연구로 잘 알려진 다케다 토키마사武田時昌(1954~) 그리고 최근 후지타 마모루藤田衛의 연구가 주목된다. 후지타의 박사학위논문은 『역위』 8종의 진위 여부, 『역위』의 효진설, 패기설, 추액소조법 등을 고찰한 그간의 성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현辛賢(1967~)의 『한역술수론연구』는 스지키 요시지로의 『한역연구』를 잇는 상수역학 이론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兩漢における易と三禮』는 현대의 역학과 술수학에 관한 당대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들과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의 토론 기록을 담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왕필 역학의 경우 도다 토요사부로 이후 많지는 않지만 니시카와 야스지西川靖二(1952~)의 지속적인 연구와 최근 간행된 즈즈미 코지塘耕次(1946~)의 역주서가 눈에 띈다. 또한 저명한 경학經學 연구자 노마 후미치카野間文史(1948~)는 2009년부터 『주역정의』를 번역하여 히로시마대학의 학술지인 『동양고전학연구』에 꾸준히 게재하고 있는데, 현재 대과과까지 진행된 상태다.

○宋元代 易學

副島一郎, 『行動規範としての文章－胡瑗『周易口義』における人文化成と君臣關係』, 『日本宋代文學學會報』 2, 2016.

宇佐美文理, 「蘇東坡の繪畫論と「東坡易傳」」, 『日本中國學會報』 42,
1990.

塘耕次, 「東坡易傳と十二消息卦」, 『文藝論叢』 68, 2007.

——, 『蘇東坡の易』, 明德出版社, 2010.

——, 『蘇東坡と『易』注』, 汲古書院, 2013.

加藤眞司, 「『東坡易傳』に見える君臣觀」, 『中國哲學』 36, 2008.

——, 「『東坡易傳』と三蘇の夷狄對策」, 『北海道大學大學院文學研究
科研究論集』 8, 2008

本田濟, 『易經講座(上下)－程氏易傳を讀む』, 明德出版社, 2006~2007.

土田健次郎, 『道學の形成』, 創文社, 2002.(胡瑗, 陳襄, 程頤의 역학사상,
「태극도」 등을 고찰)

名畑嘉則, 「程頤『易傳』に見る「公」の思想」, 『中國哲學』 33, 2005.

小島毅, 「龔原『周易新講義』について」, 『東方學』 129, 2015.

今井宇三郎, 「朱子哲學における動靜と陰陽」, 『哲學』 6, 1956.

——, 「再び太極先天之圖について」, 『哲學』 10, 1960.

——, 「周易參同契と宋學」, 『東京教育大學文學部紀要』 27, 1960.

——, 「周易參同契分章通眞義校本」, 『東京教育大學文學部紀要』
57, 1966.

——, 「左傳國語筮占考」, 『東京教育大學文學部紀要』 72, 1969.

——, 「乾坤の二用について」, 『日本中國學會報』 22, 1970.

——, 「『著卦考誤』訓注」, 『東京教育大學文學部紀要』 92, 1973.

——, 「筮法小攷－唐宋時代及び我が上代中世における」, 『追手門
學院大學文學部紀要』 17, 1983.

——, 「筮儀訓釋」, 『筑波中國文化論叢』 22, 2002.

小宮厚, 「朱子の周易解釋について」, 『中國哲學論集』 6, 1980.

- 吾妻重二,「朱子の象數易思想とその意義」,『フィロソフィア』68, 1980.
- _____,「朱熹「周易參同契考異」について」,『日本中國學會報』36, 1984.
- 中村璋八・古藤友子,『(中國古典新書) 周易本義』,明德出版社, 1992.
- 三浦國雄,「朱晦庵と『易』- そのト筮說をめぐって」,『東方學報』55, 1983.
- _____,「木下鉄矢氏「理・象・數そして數・象・理」- 朱熹の「易」理解に寄せて」,『東洋古典學研究』7, 1999.
- 木下鉄矢,「理・象・數そして數・象・理 - 朱熹の「易」理解」,『東洋古典學研究』3, 1997年.
- 伊香賀隆,「朱熹『易學啓蒙』研究序說(1) - 安東省菴の研究」,『東洋學研究』52, 2015.
- _____,「朱熹『易學啓蒙』研究序說(2) - 安東省菴の研究」,『東洋學研究』53, 2016.
- _____,「朱熹『易學啓蒙』研究序說(3) - 安東省菴の研究」,『東洋學研究』54, 2017.
- _____,「朱熹の「河圖洛書」解釋 - 『易學啓蒙』「本圖書第一」の分析」,『白山中國學』23, 2017.
- 木村清順,「朱子の占筮法について」,『中國哲學』45・46, 2018.
- 孫路易,「『周易本義』と朱子哲學」,『文化共生學研究』18, 2019.
- 川原秀城,『數と易の中國思想史 - 術數學とは何か』, 勉誠出版, 2018.
- 西信康・陳麗桂 등 공역,「『朱子語類』卷六十五 易一 綱領上之上譯注(その1)」,『中國哲學』40, 2013.
- 西信康・文盛載 등 공역,「『朱子語類』卷六十五 易一 綱領上之上譯注(その2)」,『中國哲學』41・42, 2014.

石海濤·林則堯 등 공역, 『『朱子語類』卷六十五 易一 綱領上之上譯注(その3)』, 『中國哲學』 43, 2015.

廖海華·木村清順 등 공역, 『『朱子語類』卷六十五 易一 綱領上之上譯注(その4)』, 『中國哲學』 44, 2016.

辛賢, 『『朱子語類』卷第一百 邵子之書 譯注(その1)』, 『大阪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53, 2013.

_____, 『『朱子語類』卷第一百 邵子之書 譯注(その2)』, 『大阪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55, 2015.

_____, 『『朱子語類』卷第一百 邵子之書 譯注(その3)』, 『大阪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56, 2016.

益田理廣, 「唐宋易學における「地理」の語義の變遷」, 『地理空間』 11(1), 2018年.

송원대 역학의 경우 주희 역학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 주희 역학 연구는 『주역본의』와 『역학계몽』, 『주역참동계고이』 등의 문헌과 역해석, 복서설, 이理·상象·수數의 관계, 점서법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다. 그 주요저자들은 대체로 주자학 또는 송학宋學 연구자로, 이는 태극, 리기理氣, 성명性命, 음양동정陰陽動靜 등 역학의 주요개념들이 주자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주자』(이승연·김영식 옮김, 창비, 1996), 『주자와 기 그리고 몸』(이승연 옮김, 예문서원, 2003) 등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우라 쿠니오三浦國雄, 『북송도학사』(성현창 옮김, 예문서원, 2006; 원제는 『道學の形成』)의 저자인 쓰치다 겐지로土田健次郎(1949~), 『주자학』(조영렬 옮김, 교유서가, 2019)의 저자인 기노시타 테츠야木下鉄矢(1950~2013) 그리고 『朱子學の新研究』(創文社, 2004)의 저자 아즈마 쥬지吾妻重二(1956~), 『송학의 형성과

전개』(신현승 옮김, 논형, 2004)의 저자 고지마 츠요시小島毅(1962~) 등은 일본을 대표하는 주자학 연구자다. 특히 미우라와 기노시타 사이에는 주희의 역이해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

주희 다음으로 소식 역학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이는 소식에 대한 일본 학계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가와하라 히데키川原秀城(1950~)의 저작은 술수학의 관점에서 소옹의 『황극경세서』, 주희와 친구소秦九韶의 서법, 하도낙서의 수리적 원리 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외에도 혼다 와타루의 『역경강좌(상하)』는 일본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독역회 讀譯會’에서 1992년부터 6년간 『이천역전』을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곤도 히로유키 등 홋카이도대학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홋카이도중국철학회北海道中國哲學會에서 2013년부터 『주자어류』 권65 「역易」의 역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기는 벗어나지만 『宋代易學の研究』 이후 이마이 우사부로의 연구도 여기에 추가하여 소개한다.

○ 明清代 易學

永富青地, 「王畿の易學と丁賓－大象義述を中心として」, 『東洋の思想と宗教』 6, 1989.

_____, 「『九正易因』の成立をめぐる－『易因』との關係を中心に」, 『論叢アジアの文化と思想』 4, 1995.

_____, 「北京圖書館藏『大象義述』について」, 『汲古』 38, 2000.

_____, 「天一閣博物館所藏の三卷本『大象義述』について」, 『汲古』 56, 2009.

佐藤鍊太郎, 「王畿の『易』解釋について」, 『陽明學』 10, 1998.

三澤三知夫, 「楊簡の解經法－『楊氏易傳』を中心として」, 『日本中國學會

報』56, 2004.

_____, 「季本の易學－『易學四同』を中心に」, 『專修人文論集』83, 2008.

_____, 「心易の系譜」, 早稻田大學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心易について」, 『專修人文論集』91, 2012.

井川義次, 「17世紀イエズス會士の『易』解釋」, 『日本中國學會報』48, 1996.

矢羽野隆男, 「『圖書編』の成立－その易學との關連」, 『中國研究集刊』16, 1995.

金東鎮, 「來知德の錯綜說と王夫之の乾坤竝建論」, 『日本中國學會報』68, 2016.

_____, 「來知德の易學の研究」, 京都大學 박사학위논문, 2017.

高田淳, 『王船山易學述義(上下)』, 汲古書院, 2000年.

濱久雄, 『東洋易學思想論攷』, 明德出版社, 2016.(第一章「中國古代における易と曆法の牽連關係－卦氣說の構造と原理を中心として」, 第二章「蘇東坡の易學思想」, 第三章「明代における來知德の易學とその影響」, 第四章「明代における何楷の易學とその影響」, 第五章「黃道周の易學思想」, 第六章「清代における漢易の展開－惠棟の『易漢學』を中心として」, 第七章「毛奇齡の易學思想－『仲氏易』を中心として」, 第八章「張惠言の易學思想と虞翻の易說」, 第九章「智旭の『周易禪解』－その上梓の意圖と研究方法」, 第十章「焦循の易學思想－『易通釋』を中心として」)

_____, 『東洋思想論攷－易と禮を中心として』, 明德出版社, 2018.(第一章「郝敬の易學思想」, 第二章「黃宗羲の易學思想」, 第三章「胡渭の易學思想」, 第四章「顧炎武の易學思想」, 第五章「莊存與の

易學思想」,第六章「程廷祚の易學思想」,第七章「翁方綱の易學思想」,第八章「紀磊の易學思想」)

武田時昌,「黃宗羲の圖書先天の學批判－易學史の展開のなかで」,『日本中國學會報』37,1985.

本間次彦,「河圖洛書の問題圈－圖・象數・王夫之」,『東方學』81,1991.

田中有紀,「江永の十二平均律解釋と河圖・洛書の學」,『日本中國學會報』67,2015.

廖娟,「曹元弼の『易』學三書－清末民國期の經學に關する一考察」,『中國哲學研究』29,2017.

牧角悅子,「聞一多『周易義証類纂』について」,『神話と詩:日本聞一多學會報』16,2018.

명청대 역학의 성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나가토미 세이지永富青地(1961~), 사토 렌타로佐藤鍊太郎(1953~) 등 양명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주목된다. 특히 미사와 미치오三澤三知夫의 신진연구는 양간·왕기·계본·이지 4인의 역학사상을 고찰하여 심역心易의 계보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하마 히사오濱久雄(1925~)의 두 저서는 저자의 최근 20년간의 연구 중 중국과 일본의 역학 관련 성과들을 묶어낸 것으로 저자의 방대한 지식과 연구를 잘 보여준다. 명청대로는 내지덕·하해·황도주·혜동·모기령·장혜언·지육·초순·학경·황중희·호위·고염무·장존여·정정조·옹방강·기뢰 16인의 역학사상을 고찰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카다 아츠시高田淳의 『왕선산역학술의』는 『주역외전』을 중심으로 왕부지의 역학사상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 역학 일반

佐藤貢悦, 「易思想における「一」なるものについて－太極・道をてがかりに」, 『比較思想の途』 2, 1983.

_____, 「『周易』における太極の思想的意義」, 『倫理學』 1, 1983.

_____, 「『周易』における「道」について－經を中心として」, 『倫理學』 2, 1984.

_____, 「退溪學における敬の哲學の淵源について－易的論理との關係をめぐって」, 『哲學・思想論集』 12, 1986.

_____, 「『周易』繫辭傳における道の根本思想」, 『倫理學』 4, 1986.

_____, 「『易傳』の道德論における占筮の位置」, 『哲學・思想論集』 14, 1988.

花崎隆一郎, 「荀爽の卦變説について」, 『日本中國學會報』 34, 1982.

_____, 「『李圖』攷」, 『日本中國學會報』 38, 1986.

_____, 「朱子卦變説について」, 『中國研究集刊』 8, 1989.

_____, 「『易本義』卦變圖攷」, 『日本中國學會報』 44, 1992.

_____, 「俞琰の卦變説について」, 『中國研究集刊』 14, 1994.

_____, 「東涯『卦變考』筭記－その「通解」との比較において」, 『中國研究集刊』 19, 1997.

_____, 「周易『卦變説』の研究」, 關西大學 박사학위논문, 1999.

館野正美, 「中國古代における運命論の統合～荀子を経て『易傳』へ」, 『東洋の思想と宗教』 4, 1987.

_____, 「何晏における運命と人間－その易學と〈無〉なる〈道〉について」, 『研究紀要』 52, 1996.

_____, 「王弼における理性と運命－存在論的思惟と運命論」, 『研究紀

要』60, 2000.

_____, 「形而上學としての醫學－易哲學と中國醫學」, 『研究紀要』78, 2009.

元勇準, 「『周易』における「中」の意味とその變容」, 『人文科學』13, 2008.

井ノ口哲也, 「『周易』の革命思想」, 『中央大學文學部紀要』262, 2016.

대표적인 성과로는 도와 태극 등 『주역』의 주요개념 및 퇴계 역학에 대한 사토 코에츠佐藤貢悅(1956~)의 연구, 패변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하나사키 류이치로花崎隆一郎(1929~)의 연구, 운명론의 관점에서 역학을 고찰한 다테노 마사미館野正美(1954~)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하나사키의 박사학위논문은 정이의 패변설 연구를 추가하여 기존의 성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4. 일본 역학의 연구

일본의 연구자들이 자국의 전통시대 사상가들의 역학사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그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 80년 이후의 것들이다. 현재 연구가 진행된 인물들은 도겐 즈이센桃源瑞仙(1430~1489), 분시 겐쇼文之玄昌(1555~1620),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1618~1682), 구마자와 반잔熊澤蕃山(1619~1691), 야마가 소코山鹿素行(1622~1685), 이토 진사이伊藤仁齋(1627~1705), 오규 소라이荻生徂徠(1666~1728), 이토 토가이伊藤東涯(1670~1736), 다자이 순다이太宰春台(1680~1747), 나카이 리켄中井履軒(1732~1817), 이노우에 킨가井上金峨(1732~1784), 아이자와 난쵸藍澤南城(1792~1860), 가이호 교손海保漁村(1798~1866), 네모토 미치아키根本通明(1822~1906), 미지마 추슈三島中

洲(1831~1919), 시노부 죠켄(信夫恕軒)(1835~1910) 등이다. 에도시대의 인물들이 대부분이며, 根本通明, 三島中洲 등은 메이지시기의 대표적인 한학자들이다. 이 분야의 주요 성과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濱久雄, 『東洋易學思想論攷』, 明德出版社, 2016. (第十一章「荻生徂徠の易學思想」, 第十二章「太宰春台の易學思想」, 第十三章「伊藤東涯の易學」, 第十四章「根本羽嶽と信夫恕軒との易學論争」, 第十五章「三島中洲の易學思想」)

——, 『東洋思想論攷－易と禮を中心として』, 明德出版社, 2018. (第九章「中井履軒の易學思想」, 第十章「井上金峨の易學思想」, 第十一章「海保漁村の易學思想」)

奈良場勝, 『近世易學研究－江戸時代の易占』, 東京: おうふう, 2010.

水上雅晴, 「日本中世の易學における禁忌－明經博士家に對する影響を中心に」, 『琉球大學言語文化論叢』 8, 2011.

吳偉明, 大野裕司(譯), 「徳川時代以前の日本易學」, 『中國哲學』 41・42, 2014.

近藤浩之, 「擲錢法に對する桃源瑞仙の講抄」, 『中國思想史研究』 36, 2015.

村上雅孝, 「近世易學受容史における鵞峰点「易經本義」の意義」, 『文藝研究』 100, 1982.

——, 「文之玄昌と「周易傳義大全」」, 『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 25, 1989.

——, 「文之玄昌と宋學－「周易傳義大全」の書き入れを通して見た」, 『文化』 57(3・4), 1994

閻茁, 「熊澤蕃山の『周易』解釋における獨自性－「太極」をキーワードに」, 『日本思想史學』 31, 1999.

- 古川治,「熊澤蕃山の學問と易學－藤樹學の繼承と展開」,『兵庫教育大學研究紀要』第2分冊(20),2000.
- 李瑩,「『繫辭傳』における熊澤蕃山の易學思想」,『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10,2017.
- ,「『易經小解』における熊澤蕃山の易學思想」,『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11,2018.
- 石橋賢太,「山鹿素行と『易』」,『國文學研究資料館紀要:文學研究篇』43,2017.
- 前田勉,「仁齋學の繼承－伊藤東涯の『易』解釋」,『文藝研究』108,1985.
- 王鑫,「卜筮與天理－朱熹易學的探討」,『千里山文學論集』83,2010.
- ,「伊藤仁齋的古學與易學－人倫的世界與形而上學」,『關西大學中國文學會紀要』33,2012.
- ,「后世談理,率祖乎易－伊藤東涯の易學研究」,『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5,2012.
- ,「易道與政道－太宰春台の易學研究」,『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東アジア文化研究科開設記念號,2012.
- ,「日本近世易學研究」,關西大學 박사학위논문,2012.
- ,「日本近世的易占－以海保漁村的《周易古占法》爲中心」,『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7,2014.
- 伊東倫厚,「伊藤東涯の『周易』十翼批判」,『日本中國學會報』55,2003.
- 廖海華,「伊藤東涯における程朱卦變說の批判と受容－並びに程朱卦變說を論ず」,『中國哲學』44,2016.
- ,「伊藤東涯の易學とその特色－『周易傳義考異』からみる」,『日本中國學會報』70,2018.
- ,「伊藤東涯の卦變說－その早年と晩年との差異」,『中國哲學』45.

46, 2018.

_____, 「江戸時代の易學に關する研究」, 北海道大學 박사학위논문, 2019.

村山敬三, 「藍澤南城の『周易索隱』について」, 『大東文化大學漢學會誌』 56, 2017.

廖娟, 「江戸日本における「古易」問題－宋元中國と比較して」, 『中國: 社會と文化』 33, 2018年.

_____, 「中國と日本における易經學の近代的變容」, 東京大學 박사학위 논문, 2019.

일본 역학 연구의 경우 이토 진사이와 그 아들 토가이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그들이 일본 근세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바 마사루奈良場勝의 저작은 에도시대 민간에서 유행한 주역점과 유관 문헌들을 고찰한 것이다. 王鑫의 학위논문은 이후의 연구 성과들이 추가되어 2017년에 같은 제목으로 북경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廖海華의 학위논문은 이토 토가이를 중심으로 에도시대의 역학을 고찰한 것이고, 廖娟의 학위논문은 청말민국 시기의 항신재杭辛齋, 상병화尙秉和와 메이지시기 전후의 根本通明 등의 역학사상을 고찰한 것이다. 이외에도 구마자와 반잔에 대한 李瑩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일본 역학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관심이 눈에 띄는데, 이는 해외 학계의 동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해외 연구자들도 최근 일본 역학을 주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로는 홍콩 중문대학 吳偉明의 『易學對德川日本の影響』(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09)과 대만대학 陳威璿의 『日本江戸時代儒家《易》學研究』(臺北: 政大出版社, 2015) 등이 있다.

5. 나오는 말

정리하자면, 1980년 이후 일본 학계의 『주역』 연구는 그 이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며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일본의 출토문헌 연구와 궤를 같이 해왔던 출토 『주역』 연구이지만 현재는 일단 정리기에 접어든 듯하다. 마왕퇴 백서와 상박초간 『주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한 연구서와 역주서들이 출간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기대가 된다. 중국역학의 경우 주요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학계와 유사하지만,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않은 인물과 문헌들에 대한 연구가 많다. 또한 일본역학의 경우 연구 성과의 대부분이 최근 10년 사이의 것이라 아직은 시작단계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학계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역』 연구를 비교해보면, 서로 상대 국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문제시한다면, 앞으로 한일 양국의 『주역』 연구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